

9월의 기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에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조용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2.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3.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4.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많은 영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더욱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5.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6.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이시은,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Tracy Gooden, Simon S. Prasad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내 믿음의 가나다라

미국의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료 프로그램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외모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마약중독자로서, 수염이 덩수룩하고, 머리를 빗지 아니하고, 옷도 아주 험하게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염도 깨끗이 깎아주고, 머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며, 옷도 깨끗한 옷을 입히고 아주 신사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거울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놀랍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게 난 줄 몰랐습니다.”, “너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변화된 자화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이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자화상을 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다시 건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로 죄인인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질병을 앓지 않고 낮게 되고, 예수님이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하고 축복을 허락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 하심으로 영생 복락을 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 보혈로 청결하게 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마음 속에 매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무시기 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모시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함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02년 8월 나이지리아 성회



지난 2002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나이지리아 대성회>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황에 처해있는 나이지리아의 영혼들에게 큰 위로를 준 성회였다. 당시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올루세군 오바산조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국민 자격으로 초청하며 성회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수도인 라고스 프레아시티에서 DCEM의 주관 아래 성회가 개최되었다.

나이지리아 성회는 현재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성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고, 참석한 연인원 2백만여 명 중 10만명이 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난 성회

였다. 당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 비교적 기독교 인구가 많은 편에 속했지만, 사머니즘과 결합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았다. 나이지리아 성회는 올바른 주님의 길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더욱 뜨겁고 간절히 기도한 성회였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이지리아의 희망이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메시지를 선포했다. 성도들은 이에 화답하듯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성회가 열린 이들 동안 성회 장소에서 잠을 자며 성회에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성회 후 주일이었던 11일에 올루세군 오바산조 대통령은 조용기 목사를 대통령궁으로 초청하여 주일예배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내외와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로운 주일예배를 인도했고 나이지리아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2002년 8월의 나이지리아 성회를 되돌아보며,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성도들을 위해 조용기 목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쉬지 않고 기도로 함께해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죽음 이후의 심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삶을 살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 9:27)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는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가장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운명을 안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도록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조치를 무시하고 난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고통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예수님과 강도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38-44절)

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어떤 개인이든, 예수님을 믿을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39-40)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열두 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절망에서 건지시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옆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아무 공로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변명하면 버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

로, 못난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겨 주시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권세와 현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세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떨쳐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종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와 의를 얻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고, 치료와 건강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으며,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집 : 조용기 목사님의 대륙 별 해외 성회 ①

아프리카



▲ 1993년 케냐 성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조용기 목사. 한국의 성령운동을 제3세계에 알리며 아프리카 선교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온 성회다.



▲ 1996년 모리셔스 성회. 아프리카의 작은 섬 모리셔스에서 열린 성회로, 모리셔스 정부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성회다.



▲ 2000년 가봉 성회. 조용기 목사와 회교도로 알려진 가봉 의봉고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다.



▲ 2002년 나이지리아 성회를 위해 DCEM 조용기 총재목사와 DCEM 사무총장 시가께 시게마사 목사가 비행기에 서 내려 성회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 2000년 가봉 성회에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성도에게 조용기 목사가 신유기도를 통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육지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대륙 한 가운데로 적도가 지나고 있어 몹시 뜨겁고 무더운 기후이며 55개의 국가(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넓은 지형을 가진 아프리카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부정 선거와 독재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 발달이 더디고 낙후된 곳이 많고 유엔에서 분류한 최빈국(최저개발국)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대륙이다.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적 발전의 부재는 사회 전반적 부문을 불안정하게 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은 여러 민간신앙에 기대어 우상숭배가 만연한 가운데 있었다. 이들의 영적 구원을 위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비행기로도 발길이 닿기 힘들었던 시절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1993년 3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아프

리카 8개국에서 총 10회의 성회를 개최했으며, 모든 성회에 참석한 인원은 5백 17만여 명이 이른다. 이토록 많은 성도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조용기 목사를 향한 아프리카 성도들의 사랑 덕분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국민들이 자국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용기 목사의 이름은 알고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인지도와 애정이 남다르다. 가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조용기 목사의 멈추지 않는 관심과 사랑을 그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용기 목사가 인도하고 DCEM이 주관한 아프리카 최대규모 성회는 지난 2002년 나이지리아 성회다. 연인원 2백만여 명이 모였고, 참석자 중 10만여 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은 성회였다. 또한 조용기 목사는 성회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 대통령 궁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했으며 예배에는 각 부처 장관과 경제인 등 500

여 명이 참석했다. 아프리카를 향한 조용기 목사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와 함께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프리카는 이슬람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어느때보다 영적 전투가 치열하다. 일부 무슬림들이 과거 백인들의 노예 매매와 식민지배를 비판하며 기독교를 백인의 종교로 치부하고 아프리카의 빈곤 원인을 기독교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아프리카를 향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며,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이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하나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다.